

美日, 무기공동 개발·생산 협의체 창설...“글로벌 파트너로”

양국동맹 대대적 업그레이드 담은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주일미군-자위대 통합성 강화...美日英 내년부터 합동훈련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또 중국, 북한 등에 의한 역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고, 미국-일본-영국 간 정례 군사훈련, 미-일-호주 미사일 방어 협력 등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 결과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라는 부제목을 붙인 공동성명은 ‘각각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 중요한(군사) 역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으로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방위산

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 S)을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국은 미사일 공동개발과 공동 생산, 전진 배치된 미국 해군 함정과 공군기의 공동 보수 등을 포함한 양국간 최우선 협력 분야를 특정할 것이라고 공동성명은 부연했다.

양 정상은 또 평시 및 유사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 및 작전 계획 수립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명령·통제의 틀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은 “보다 효과적인 미일 동맹의 지휘 통제는 긴급한 지역 안보 문제에 직면해 역지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정보와 감시, 정찰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제트 훈련기 공동 개발·생산, 조종사 훈련 등을 위한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대한

지구 자계도 탐지와 추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호주, 영국 등 제3국과의 3자간 안보 협력 방안도 성명에 적시됐다.

적국 전투기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 일본, 호주 3국이 공동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관련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미·일·영 3국간에 정례 군사훈

련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 성명에 명시됐다.

이와 함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회) 파트너 국가들이 양자 컴퓨팅, 극초음속 기술, 인공지능(AI), 사이버 기술 등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또한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을 동원해 일본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을,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 역량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일본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각각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지난 3년간 미일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우리의 협력 관계가 갖는 세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관여를 확장하고 있다”며 “양국이 글로벌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와 함께 핵융합 에너지의 상업적 활용과 관련한 협력도 시작하기로 했다. 또 달에 착륙할 우주인에 일본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뱃줄로 에펠탑 100m 오른 프랑스 여성

로프 클라이밍 세계 기록

프랑스의 30대 장애물 경기 선수가 10일(현지시간) 파리의 랜드마크인 에펠탑을 뱃줄로 100m 올라가 로프 클라이밍 세계 기록을 세웠다. <사진> 아누크 가르니에(34·여)는 이날 오전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펠탑에 매달린 로프를 손으로 잡고 올라가 당초 예상했던 20분보다 빠른 18분 만에 에펠탑 2층에 도달했다.

올라간 높이는 100m로, 종전 남자 로프 클라이밍 신기록인 남아프리카공화

국 토머스 반 툰더의 90m와 여자 신기록인 덴마크 이다 마틸드 스텐스가의 26m를 모두 깼다.

가르니에는 “꿈이 이뤄졌다. 마법 같았다”며 “내가 절대 의심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해낼 거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자신의 연례 장애물 경기에서 두차례 세계 챔피언에 오른 뒤 로프 클라이밍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을 그 무대로 삼았다. /연합뉴스

바이든, 北日정상회담 첫 지지...기시다 “고위급 협의 계속”

美 지지로 ‘한미일 균열’ 우려 덜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미동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북일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지지를 얻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추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일본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미일 3국간 협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런 부담은 덜 수 있게 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힌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조(일본과 북한)간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힘을 보탰다.

그는 “기시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이슈를 논의했다”며 “북한이(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인권 및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우리는 둘 다 동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천500년전엔 여우가 반려동물이었을 가능성”

아르헨티나 수렵 채집인 매장지서 뼈 발굴

1천500여년전 여우가 반려동물로 길러지며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대·아르헨티나 진화학연구소 연구팀은 10일(현지시간) ‘파타고니아의 파트너십, 멸종된 두시키투 아부스’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영국 왕립학회 오픈 사이언스 저널

에 발표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논문을 보면 연구팀은 1천500년 전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카타나카 지역 수렵 채집인 무덤 내 동물 유골을 ‘두시키투 아부스’(Dusicyon avus)라고 특정했다.

저만 세퍼드(개)와 비슷한 크기의 두시키투 아부스는 약 500년 전에 멸종

된 여우의 일종인 개과 동물이다.

연구팀은 DNA 분석, 형태학적 식별, 동위원소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이 동물이 인간과 비슷한 식생활 패턴을 유지했음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포유류 간 삶과 죽음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다.

연구팀은 “두시키투 아부스를 인간이 먹었다는 흔적은 없다”며 “뼈의 보존 상태를 볼 때 이 동물은 야외에 방치된 게 아니라 고의로 매장된 것으로 보

인다”고 전했다.

이는 수렵 채집 사회 내에서 두시키투 아부스가 인간의 반려동물처럼 지낸 귀중한 개체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는 대목이라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 공동 매장 기록은 수렵 채집인과 두시키투 아부스 사이의 상징적 상호 작용을 대폭 확장한다”며 “증거는 멸종된 여우의 일부 표본이 인간과 공생 관계에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영국 BBC는 인간의 무덤에서 거의 완전한 형태의 여우 유골을 확인한 건 고고학계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명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곡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8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